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수정¹, 이기성^{2*}

¹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²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The Impact of Personal, Home, and School Environmental Factors o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Su-Jeong Lee¹, Ki-Seong Lee^{2*}

¹Doctoral Candidate, Soongsil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Lifelong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들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21 자료의 중학교 1학년 2,23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양육태도는 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부모 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양육태도는 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그릿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넷째,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는 긍정적 양육태도와의 완전매개효과, 부정적 양육태도와의 부분매개효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공하였다.

키워드 : 부모양육태도(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그릿, 진로적응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on career adaptability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se influence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2,235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21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Data analysis methods includ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6.0 program.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impact of parenting attitude on career adaptability, positive parenting attitude was significant as positive (+),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 was negative (-). Second, in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gri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was significant as positive (+),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 was negative (-). Third, grit was positively (+) significant to career adaptability.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career adapt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was found to b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with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a partial mediating effect with negative parenting attitude. Through this, practical suggestions were provided to improve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Key Words : Parenting attitude(positive parenting attitud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Grit, Career adaptability

*Corresponding Author : Ki-Seong Lee(kslee61@ssu.ac.kr)

Received November 24, 2023

Accepted January 20, 2024

Revised January 8, 2024

Published January 28, 2024

1. 서론

중학생은 사회와 현상을 지각하는 능력이 점차 발달하며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사회 전반에 대한 태도를 성찰하며 인식한다. 또한, 중학생은 개인 내적으로는 초등학교와 다른 학사 운영 및 대인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자신의 가치와 소속감을 새롭게 경험한다. 이런 과정에서 중학생은 자신의 진로 탐색 또는 미래 비전까지 생각한다[1].

그러나 현재 중학생은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진로 전환과 적응의 준비가 부족하며, 중학생 시기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학을 결정한다. 이후 고등학교, 대학 입학 이후에 진로 변경에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2].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바라본다면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3], 학교현장에서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을 교육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은 무엇이며, 이를 높이기 위해 조성해야 할 여건과 환경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진로적응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3-5], 그릿[6-8] 등 다양하게 밝혀진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과 변화에 대한 양상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4차년도 데이터(2021)[9]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을 경유하여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릿을 매개변수로 선정할 이유는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릿과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릿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학생의 그릿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그릿의 매개효과 확인 과정을 거쳐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학생의 그릿은 진로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현재와 미래의 진로발달, 직업 전환, 직업 관련 개인적 트라우마 등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 및 자원이다[10]. 이는 자신의 직성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직업과 함께 업무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가리킨다.

진로발달 단계 측면에서 보면, 초등학교까지는 진로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준비하는 단계이다. 이후 대학에서는 진로를 전문화하는 준비단계이다[11]. 중학생 시기에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태도,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 진로 의식과 관련된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것은 중학생의 고등학교 이후 삶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시기의 원만한 진로적응성은 향후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이 가진 잠재력 발휘와 자아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중학생 시기에 일과 직업에 대해 학습한 내용은 청년기 이후의 진로 결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2], 중학생이 겪고 있는 내·외부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에 체계적인 진로적응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현재의 직업 세계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13], 단순히 진로 선택과 그에 따른 계획 수립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Vondracek(2001)는 진로적응에서 아동기 발달의 중요성이 너무나 간과 된 것을 지적하였고[14], Kim(2007)은 학령기의 진로 미성숙 및 진로 미결정은 고등학생에게 비행,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에 영향요인으로 밝히기 때문이다[15].

오늘날 중학생은 진로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16]. 따라서 중학생에게는 자신이 소유한 장점과 능력을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처럼 중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진로개발 및 발달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효과적인 진로적응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특히, 학교현장에서는 중학생의 미래의 직업 및 삶과 연계된 진로보다는 진학을 위한 진로 지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17].

최근 중학생의 진로탐색과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진로교육법 제정 및 자유학기제 시행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8]. 교육부에서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진로교육 과정을 재편성하고, 진로교육 여건을 조성하며, 학교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학생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중학생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적성, 흥미를 파악하고, 진로 계획을 세우며, 직업 선택을 준비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다[19].

2.2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적응성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 양육에 나타나는 부모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 및 태도이자 반응양식이며[20],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심리적·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행동 양식이다[21]. 이러한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자녀에게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과 정적인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3].

So(2003)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진로적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4]. Kang & Ahn(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5], Lim & Yun(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진로적응성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22].

2.3 부모양육태도와 그릿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것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고하였다[23]. 이는 부모가 자녀

인 자신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지지해주며,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적절한 설명과 도움을 제공해준다고 느낄수록 자녀는 학습에의 열정과 집중이 높아지며, 목표에 대한 흥미가 유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2.4 그릿과 진로적응성

그릿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열정과 관심을 유지하며, 어려움이나 실패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을 말한다[24]. 이러한 그릿은 중학생 시기에 진로 준비에 일관된 관심과 지속적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6-7]. Kwak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그릿이 진로적응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8], Jeong(2019)의 연구에서도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이 진로적응성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25].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것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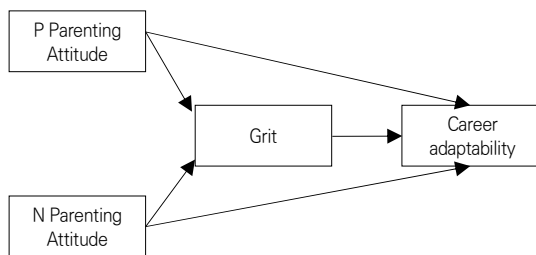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3.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8) 4차년도 자료(2021)[9]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 모집단은 중학교 1학년 2,590명이나 결측치를 제거하고 조사에 응답한 2,235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1년이며 2022년 12월에 자료가 공개되었다. 조사방

법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아동청소년의 개인발달, 발달환경 등이었다. 표본추출은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3.3 측정 도구

3.3.1 부모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그릿의 측정도구는 Kim & Lee (2017)의 자료를 참고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4차년도 자료(2021)[9]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는 긍정적 양육태도로 구성하였고,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등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성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등 12개 문항이며,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신뢰도는 .914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등 12개 문항이며,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신뢰도는 .904로 나타났다.

3.3.2 그릿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그릿의 측정도구는 Kim & Hwang(2015)[26] 자료를 참고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4차년도 자료(2021)[9]를 활용하였다.

그릿의 측정문항은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등 8개 문항이며,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다는 의미이다. 다만 1, 3, 5, 6번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신뢰도는 .607로 나타났다.

3.3.3 진로적응성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의 측정도구는 Kim & Kim(2021)[27] 자료를 참고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4차년도 자료(2021)[9]를 활용하였다.

진로적응성의 측정문항은 '나는 내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등 13개 문항이며,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신뢰도는 .930으로 나타났다.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빈도분석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값, 왜도, 첨도 파악을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 그릿, 진로적응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셋째,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 그릿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분석과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중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217명(53.7%), '여자' 1,018명(46.3%)로 나타났다. 진로관련 대화에서 아버지와의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108명(4.8%),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84명(17.0%), '가끔 대화한다' 1,004명(44.3%), '자주 대화한다' 650명(1.6%), '해당없음' 119명(5.3%)으로 파악되었다. 진로관련 대화에서 어머니와는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37명(4.8%),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166명(7.3%), '가끔 대화한다' 791명(34.9%), '자주 대화한다' 1,208명(53.3%), '해당없음' 63명(2.8%)으로 파악되었다. 진로관련 대화에서 학교선생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203명(7.0%),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655명(28.9%), '가끔 대화한다' 1,112명(49.1%), '자주 대화한다' 264명(53.3%), '해당없음' 31명(1.4%)으로 파악되었다. 진로관련 대화에서 학원/과외선생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322명(14.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474명(20.9%), '가끔 대

화한다' 892명(39.4%), '자주 대화한다' 256명(15.7%), '해당없음' 221명(9.8%)으로 파악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35)

Variable	Section	n	%	
Gender	Man	1,217	53.7	
	Female	1,018	46.3	
Career-Related Conversation	Father	no talk at all	108	4.8
		don't talk much	384	17.0
		talk sometime	1,004	44.3
		talk often	650	28.7
		not applicable	119	5.3
	Mother	no talk at all	37	1.6
		don't talk much	166	7.3
		talk sometime	791	34.9
		talk often	1,208	53.3
	School Teacher	not applicable	63	2.8
		no talk at all	203	9.0
		don't talk much	655	28.9
		talk sometime	1,112	49.1
		talk often	264	11.7
	Academy Teacher	not applicable	31	1.4
		no talk at all	322	14.2
don't talk much		474	20.9	
talk sometime		892	39.4	
talk often		256	15.7	
	not applicable	221	9.8	

4.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은 3.112 (표준편차=0.450), 부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은 1.968 (표준편차=0.489)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그릿의 평균값은 2.565(표준편차=0.374),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의 평균값은 2.762(표준편차=0.564)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알 수 있는 왜도 (.047-.535)와 첨도(.058-1.053)의 절대값이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 집단의 정규성을 확보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Skew	Kur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3.112	.450	-.258	.650
Negative Parenting Attitude	1.968	.489	.332	.196
Grit	2.565	.374	.269	1.053
Career Adaptability	2.762	.564	.246	-.188

4.3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과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r=.198, p<.001$), 부정적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r=-.280, p<.001$)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과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와의 정적(+)으로 $p<.001$ 수준, 부정적 양육태도와의 부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 진로적응성과 매개변수인 그릿과의 상관관계($r=.322, p<.001$)는 정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그릿과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r=.225, p<.001$), 부정적 양육태도의 상관관계($r=-.276, p<.001$)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그릿과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와의 정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와의 부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①	②	③	④
①	1			
②	-.44	1		
③	.22	-.27	1	
④	.19	-.28	.32	1

Note: All significance probabilities=*** $p<.01$

① positive parenting attitude ② negative parenting attitude ③ grit ④ career adaptability

4.4 위계적 회귀분석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 양육태도, 그릿을 차례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아래 표의 Model 1에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성별($\beta=.006, p>.05$), 진로관련대화 아버지($\beta=-.067, p<.05$), 진로관련대화 어머니($\beta=.128, p<.001$), 진로관련대화 학교선생($\beta=.089, p<.001$), 진로관련대화 학원선생($\beta=.016, p>.05$)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진로관련대화 아버지, 진로관련대화 어머니, 진로관련대화 학교선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진로관련대화 학원선생은 통계적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1에 대한 회귀모형 F값은 9.931($p<.001$)으로

Table 4. Hierarchical analysi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Man	.006	.243	-.013	-.650	-.017	-.815
Female	.079	3.453***	-.022	-1.024	-.033	-1.518
Father	-.067	-2.382*	-.076	-3.009**	-.072	-2.876**
Mother	.128	4.498***	.059	2.254*	.058	2.208*
School Teacher	.089	3.538***	.043	1.877	.038	1.654
Academy Teacher	.016	.647	.021	.908	.023	1.008
Positive Parenting Attitude			.095	3.754***	.087	3.434***
Negative Parenting Attitude			-.141	-5.563***	-.131	-5.188***
Grit					.122	5.050***
F	9.931***		43.278***		42.529***	
R2	.030		.229		.239	
Durbin-Watson			1.778			

*p<.05, **p<.01, ***p<.001

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내며, 설명력은 .030으로서 중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진로적응성에 대해 3.0%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아래 표의 Model 2에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차례로 투입한 결과, 성별($\beta=-.013, p>.05$), 진로관련대학 아버지($\beta=-.076, p<.01$), 진로관련대학 어머니($\beta=.059, p<.05$), 진로관련대학 학교선생($\beta=.043, p>.05$), 진로관련대학 학원선생($\beta=.021, p>.05$)으로 진로관련대학 아버지, 진로관련대학 어머니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건강상태, 진로관련대학 학교선생, 진로관련대학 학원선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beta=.095, p<.001$), 부정적 양육태도($\beta=-.141, p<.001$)으로 나타나 긍정적 양육태도는 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으로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였다.

Model 2에 대한 회귀모형 F값은 43.278 ($p<.001$)로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내며, 설명력은 .229로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해 22.9%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Model 3에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투입한 후 매개변수인 그릿을 투입한 결과, 성별($\beta=-.017, p>.05$), 진로관련대학 아버지($\beta=-.072, p<.01$), 진로관련대학 어머니($\beta=.058, p<.05$), 진로관련대학 학교선생($\beta=.038, p>.05$), 진로관련대학 학원/과외선생($\beta=.023, p>.05$)으로 진로관련대학 아버지, 진로관련대학 어머니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진로관

련대학 학교선생, 진로관련대학 학원/과외선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긍정적 양육태도($\beta=.087, p<.001$), 부정적 양육태도($\beta=-.131, p<.001$), 그릿($\beta=.122, p<.001$)로 나타나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 그릿은 정적(+) 등으로 유의하였다.

Model 3에 대한 회귀모형 F값은 42.529 ($p<.001$)로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내며, 설명력은 .239로서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대해 23.9%를 설명하고 있다.

4.5 매개효과 검증

중학생의 학업열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Mediation effec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β	β
Positive Parenting Attitude	.066**	.050*	.042
Negative Parenting Attitude	-.089***	-.117***	-.107***
Grit			.114***
	R ² =.309, F= 144.200***	R ² = .213, F= 87.248***	R ² =.222, F= 80.470***

*p<.05, **p<.01, ***p<.001

매개효과 분석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beta=.066, p<.01$), 부정적 양육태도($\beta=-.089,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44.200, p<.001$). 이 모형에서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그것을 설명하는 능력은 30.9%이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beta=.050$, $p<.05$), 부정적 양육태도($\beta=-.117$,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87.248$, $p<.001$). 이 모형에서 중학생의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을 설명하는 능력은 21.3%이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beta=.042$, $p>.05$), 부정적 양육태도($\beta=-.107$, $p<.001$), 그것($\beta=.114$,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80.470$, $p<.001$). 이 모형에서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 그것이 진로적응성을 설명하는 능력은 22.2%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그것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 1단계의 조건을 만족시켰으며, 2단계에서도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2단계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그리고 3단계에서도 부정적 양육태도와 매개변수인 그것,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3단계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긍정적 양육태도는 3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3단계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2단계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표준화 회귀계수보다 작게 나타나 그것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양육태도는 3단계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것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Sobel Test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of mediation effect

Path between Variables	Z	p
Positive Parenting Attitude→Grit→Career Adaptability	3.5090	.001
Negative Parenting Attitude→Grit→Career Adaptability	3.2618	.001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Z 값이 $p<.05$ 수준에서 ± 1.96 보다 커야 한다. 독립변수인 부모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그것에 미친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투입하고, 매개변수인 그것이 종속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친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투입하여 Sobel Test의 Z값과 유의수준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양

육태도 Z 값은 $-3.2618(p<.001)$ 으로서 통계적으로 99.9% 신뢰수준에서 그것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검증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의 4차년도 자료(2021)[9]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것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는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는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중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진로적응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3,5]와 일치하였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진로적응성을 약화시킨다는 선행연구[23,28]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는 그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이라는 그것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이들이 그것과 높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그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1, 29]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것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0]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는 그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31]는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그것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진로계획 및 준비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수행되는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장기목표를 이루기 위한 끈기를 의미하는 그것은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높은 연관성을 밝힌 연구결과[7-8, 32-34]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그것이 청소년 시기, 진로 준비에 일관된 관심과 지속적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진로성숙을 향상시키는 개인적 변인으로 살펴본 결과[35]와

맥락이 같다.

넷째, 그릿은 중학생이 인지한 긍정적 양육태도와는 완전매개효과,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적응성 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완전매개효과는 그릿이 긍정적 양육태도와 진로적응성 간에 온전히 관여한 것이다. 이는 진로적응성에 있어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보다 그릿의 영향력이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분매개효과는 중학생이 인지한 부정적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인 그릿이 투입되었을 때 일정 부분을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생의 진로적응성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그릿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중학생이 인지한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면 그릿을 낮추고, 낮아진 그릿은 진로적응성을 낮추는 그릿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다만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릿[1, 29-30, 36], 그릿이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7-8, 35]를 대비할 때 본 연구결과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를 높이고 그릿을 향상하기 위한 논의와 교육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그들에게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함양하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감소하도록 돕는 사회적·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부모에게 생애주기별 및 가족특성별 부모의 역할과 어려움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행동적 변화, 내적 변화 및 자녀의 변화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것을 보면 학교에서도 부모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그릿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였기에, 중학생의 높은 그릿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끈기와 열정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분명하게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릿이 무엇이며, 자신은 그릿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생이 그릿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 학부모는 중학생에게 흥미를 키우며, 흥미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재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과외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통해 중학생에게 그릿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그릿, 진로적응성 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중단연구를 통해 중학교 1학년의 진로적응성에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따스함과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으로 구성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을 경유해 진로적응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을 경유할 때만 유의한 완전매개효과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을 경유하여 진로적응성에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W. R. Lee. (2022).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Enthusiasm and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ositive Parental Attitudes and Self-Esteem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9), 53-81. DOI : 10.21509/KJYS.2022.09.29.9.53
- [2] S. Y. Park. (2022). An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54(2), 83-106. DOI : 10.23840/agehrd.2022.54.2.83
- [3] S. Y. Kim. (2020).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Teacher Morale, and Schoo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Type and Career Maturity of

- Adolesc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4), 57-77.
- [4] H. S. So.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Parent's Parenting Attitude as Perceived by the Child.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5] W. D. Kang & G. Y. R. Ahn. (2015). The Influence of parental nurturing attitud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reparedness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4), 739-764.
DOI : 10.17315/kjhp.2015.20.4.003
- [6] Y. K. So & S. J. Yang. (2021).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Emerging Adulthood.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4), 363-382.
DOI : 10.21509/KJYS.2021.04.28.4.363
- [7] H. S. Jung & B. L. Lee. (2021). The Effect University Student's Career Stress on Their Career Adapt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12(3), 1707-1720.
DOI : 10.22143/HSS21.12.3.119
- [8] M. S. Kwak & Y. H. Kim & S. A. Kyun & S. Y. Lee.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Maturity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 827-839.
- [9]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2021). <https://www.nypi.re.kr/archive/board?>
- [10] Savickas, M. L.(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R. W. Lent, & S. D. Brown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11] I. H. CHOI. (2019) A Longitudinal Study on Vocational Maturity Development using Growth Mixture Model: From Late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32(1), 155-181.
DOI : 10.31158/JEEV.2019.32.1.155
- [12]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385-419.
DOI : 10.1016/j.jvb.2004.05.006
- [13] K. Y. Lee & S. Y. Kim. (2009). A Strength of Weak Ties Revisited: A Study on Effects of Weak Tie on Career Maturity of Teenager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2(2), 21-45.
DOI : 10.36907/krivet.2009.12.2.21
- [14] Vondracek, (2001).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vocational psycholog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2), 252-261.
DOI : 10.1006/jvbe.2001.1831
- [15] H. R. Kim. (2007). A Study on Career Deci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Eco-systematic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Maturit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13, 51-74.
UCI : G704-SER000009000.2007.13..003
- [16] Strozier, C. (2009). Heinz Kohut and the Future of Psycho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tic Self Psychology*, 4(3), 271-287.
DOI : 10.1080/15551020902995298
- [17] B. G. Park & S. H. Bae.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apital at th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Levels in Middle Schools and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s.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4), 985-1010.
DOI : 10.15753/aje.2019.12.20.4.985
- [18] Ministry of Education. Government offic(2023).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
- [19] S. W. Baek & J. J. Jung & Y. J. Lee & C. Y. Yun.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Helplessness and Academic Engag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40(2), 407-428.
- [20] M. S. Jeong. (2010).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Research Center for Korea Youth Culture*, 25, 139-170.
UCI : G704-SER000002119.2010..25.003
- [21] S. H. Lim & J. S. Myung. (2016).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that perceive Adolescents Impact on self-esteem : Mediated effect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 23(12), 327-347.
DOI : 10.21509/KJYS.2016.12.23.12.327
- [22] A. K. Lim & C. Y. Yun.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Knowledge and Strengths U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areer Adaptability in High School Students. 28(1), 313-331.
DOI : 10.21024/pnuedi.28.1.201803.313
- [23] H. S. Jeon & M. R. Lee.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Style (warmth, autonomy support, structure provision), Grit,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ulti-group Analysis by School Level.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 779-805.
- [24]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OI : 10.1037/0022-3514.92.6.1087
- [25] E. I. Jeong. (2019). Effects of Grit and Optimism on Career Adaptability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31(2), 359-383. DOI : 10.17927/tkjems.2019.31.2.359
- [26] H. M. Kim & M. H. Hwang. (2015). Validation of the Korean Grit Scale for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 35(3), 63-74.
http://ebook.kyobobook.co.kr/dig/pnd/scholar_detail
- [27] G. H. Kim & J. S. Kim. (2021).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 Adaptability For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2), 239-269.
DOI : 10.21509/KJYS.2021.02.28.2.239
- [28] E. K. Jung & D. H. Ahn. (2018).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utonomy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Multi-Group Analysis on Belief in a Just World Level.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2), 399-418.
DOI : 10.24159/joec.2018.24.2.399
- [29] H. J. Shin.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alysis of Mediation Effects of Grit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Type & Human Development (PTHDD), 24(1), 17-37.
DOI : 10.52745/KAPT.2023.24.1.17
- [30] J. A. Lee & G. H. Kim. (2022)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Self-Estee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9-227. DOI : 10.15709/hswr.2022.42.4.209
- [31] S. Y. Park & H. W. Chung. (2021).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 Parenting Attitude,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Middle School Students' Grit: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Creativ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8), 67-81.
- [32] S. Y. Song & S. M. Lee. (2022). The Review of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Career Maturity for Adolesc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41(4), 1-19.
DOI : 10.37210/JVER.2022.41.4.1
- [33] Heckman, J. J., & Rubinstein, Y. (2001). The Importance of Noncognitive Skills: Lessons from the GED Testing Program. American Economic Review, 91(2), 145-149.
DOI : 10.1257/aer.91.2.145
- [34] M. H. Kang & S. H. Yoon & D. H. Kim & D. H. Ryoo. (2016).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Gri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and Major Interest of Natural Scienc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5(4), 109-129.
UCI : G704-000975.2016.35.4.007
- [35] Y. U. Shin & D. E. Park & M. J. Koo. (2019). The Longitudinal Effects of Grit on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32(3), 21-36.
DOI : 10.35574/KJDP.2019.09.32.3.21
- [36] Y. H. Go & H. W. Chung. (2022). The Effects of Youth Activities and Self-esteem on the Academic Helplessness: Focusing on The Mediated Effect of Gri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4), 19-36.

이 수 정(Su-Jeong Lee)

[정회원]



• 2023년 11월: 송실대학교 평생교육
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성인학습, 평생교육, HRD
- E-Mail : 7373abc@naver.com

이 기 성(Ki-Seong Lee)

[정회원]



• 1997년 6월 : University of
Minnesota, Department of
Vocational Education(Ph.D.)
• 1998년 5월~2005년 2월 :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2005년 3월~현재 : 송실대학교 평생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평생직업교육훈련, 인력자원개발
- E-Mail : kslee61@ssu.ac.kr